

< 2010년 12월 >

33번째, 농기구이야기

곡식을 찌거나 빵을 때 쓰는 도구 **‘절구’**



NH NongHyup

농업박물관

1. 절구의 개념

절구는 사람의 힘으로 곡식을 찧거나, 양념을 뺑을 때 또는 메주를 찧거나 떡을 찧을 때 쓰는 도구이다. 절구는 방아 찧을 곡물을 넣는 통(절구, 절구통)과 충격을 가하는 막대(절구 공이)로 구성된다. 지방에 따라 도구 · 도구통 · 절기방아 · 남방애라고도 한다. ‘도구통’이라는 명칭은 한자어 搗臼桶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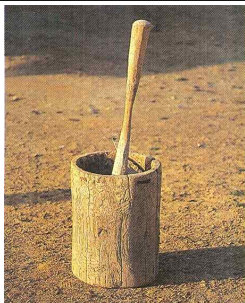
2. 절구의 종류

절구는 재료에 따라 나무절구 · 돌절구 · 무쇠절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통나무 속을 깊게 파서 만든 나무절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살림이 넉넉한 집에서는 돌절구를 사용하였다.

1개의 절구에는 두 사람이 맞공이질을 할 수 있도록 2개의 절구 공이가 달려 있으며 절구 공이도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나무절구는 절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멍바닥에 울퉁불퉁한 쇠판을 깔기도 하고, 쇠 절구는 규모가 작으며 주로 양념을 다지는 데 쓴다. 대개는 긴 나무를 깎아 매끄럽게 만드는 나무절구를 사용한다. 양쪽 끝 부분은 두툼하게 만들고 손잡이가 되는 중앙 부분은 가늘게 만들어 손으로 잡기 편하게 되어 있다. 쇠절구는 규모가 작으며 주로 양념을 다지는 데 사용한다.

나무절구는 위아래의 굽기가 같은 것이 대부분이며, 남부지방에서는 허리가 잘록하게 좁힌 것을 많이 쓴다. 반면 돌절구는 윗부분에 비하여 아랫부분을 좁게 깎아 조각을 새겨 넣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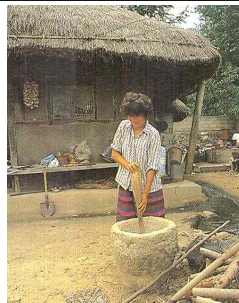
절구의 크기나 형태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제주도의 절구는 돌을 쪼아 만든 확 주위에 큰 함지박을 끼워 놓은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곡식이 확 밖으로 튀어 나와도 이내 다시 쓸어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돌절구에는 돌공이를, 쇠절구에는 쇠공이를, 나무절구에는 나무공이를 쓰는 것이 보통이나 제주도에서는 확이 돌임에도 나무공이를 쓴다. 제주도에서는 이 절구를 ‘남방애’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나무절구’



남부지방 ‘나무절구’



‘돌절구’



제주지방 ‘남방애’

3. 절구의 용도

절구는 주로 곡식을 찧거나 뺑는데 쓴다. 절구가 크고 일감이 많을 때에는 두 사람이 마주서서 절구질을 한다. 한 사람이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무주걱 같은 것으로 곡물을 뒤집어 주기도 하는데, 이를 ‘깨김질’ 이라고 한다. 절구에 떡을 치기도 하며, 더러는 세탁물을 넣고 공이로 찧어서 때를 빼는 경우도 있다. 또 나무절구는 가로로 뒀어 놓고 개상으로 쓰기도 한다.

나무절구에 나무공이로 벼 한말을 찧는 데에는 한 시간쯤 걸리고 한 되에는 20분이 필요하다. 경기 덕적에서는 분량이 많을 때에는 돌공이를 쓰며, 쌀 두되를 찧는 데에 약 20분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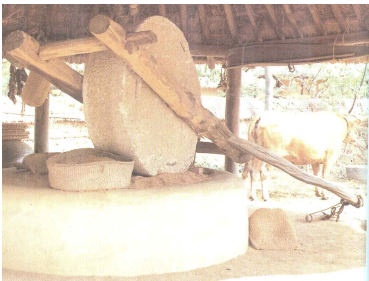
돌공이는 나무공이에 비하여 시간이 반 밖에 걸리지 않지만 공이 자체가 무거워 힘이 많이 든다.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정월의 첫 소날(上丑日)에 절구질을 하면 집안의 소가 골이 아파서 죽거나 병이 생긴다고 하여 이를 삼간다. 또,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는 보름날 새벽에 절구 공이를 가지고 집 마당이나 밭 에 가서 “디지기방아 찧자, 디지기방아 찧자.” 하면서 찧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 굼벵이나 두더지 · 독벌레 등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보름날 아침 절구 공이로 마당의 네 귀퉁이를 찧고 나서 땅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살핀다. 이때 동쪽은 봄, 남쪽은 여름, 서쪽은 가을, 북쪽은 겨울 로 여기고 땅이 많이 팬 쪽의 땅은 그 해에 물이 흔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가뭄이 든다고 점을 쳤다. 이곳에서는 절구에 여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서 보름날 아침에 절구 주위에 열두 달을 상징하는 열두 가지 음식에 콩 · 보리 · 조 · 팥 · 쌀 등의 곡식을 섞어 놓고 그 해의 흉풍을 점친다.

4. 방아에 쓰이던 농기구

곡식을 이용하기 쉽게 껍질이나 겨를 벗겨 내거나 부수거나 가루로 만드는 일을 ‘방아’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찧기 · 쏘기 · 뺑기 · 타기 가 포함된다. 찧기란 쏘고 뺑는 일을 총칭하는 말이고 쏘기는 곡식의 겨를 벗겨 깨끗하게 하는 일, 뺑기는 가루로 만드는 일, 타기는 곡식을 성글게 부수는 일을 가리킨다.

방아에는 곡식에 충격을 주어 곡식의 알갱이끼리 또는 알갱이와 연장 사이의 마찰력과 충격력으로 쏘거나 뺑는 절구 · 디딜방아 · 물방아 · 물레방아가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사이에 곡식을 넣어 쏘거나 타는 매통 · 맷돌 · 연자매가 있다.

	디딜방아 발로 밟아 움직이고 충격력이 커서 보다 능률적으로 발전된 방아연장이다.
물레방아 디딜방아와 같은 원리로 물의 힘을 이용하여 물의 막차를 이용해 물레바퀴를 돌리면 바퀴의 굴대에 고정된 누름대(발)가 방아채의 다리를 누른다.	
	맷돌 곡식을 압착하고 비비면서 껍질을 까거나 빵는데 사용하는 연장으로 바닥이 평평한 두 짝의 둥근 돌 사이에 곡식을 넣고 한 짝을 돌리면서 곡식을 갈거나 탄다.
매통 두 짝의 통나무 사이에 벼를 넣고 위쪽을 좌우로 비벼서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벼의 껍질(왕겨)을 벗기는 연장이다.	
	연자매 연자방아라고도 하며 둥글고 판판한 밑돌에 그보다 작고 둥근 윗돌을 세로로 세워서 굴린다. 윗돌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나 말을 메워 돌렸다.

5. 절구의 역사

절구가 언제부터 농가에서 이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절구’에 관한 옛 문헌은 『海東農書』에서는 ‘臼(절구)’, 『課農小抄』에 ‘臼(털구 구)’, 『訓蒙字會』에 ‘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돌절구를 『北學議』에 ‘石臼’로, 나무절구를 『課農小抄』에 ‘木臼’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아 돌절구와 나무절구가 함께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적 발굴을 통해서도 5세기 전후한 시기부터 ‘절구’가 도정(搗精)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김동섭, 『제주도 전래 농기구』, 2004.
『한국농기구도감』, 2001,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